솔렌시스 등 광주 기술 中企 13개사

‘글로벌 스타’로 키운다

솔렌시스·대유에이텍 등 광주지역 기술 중소기업 13개사가 ‘글로벌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스타기업’으로 육성된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센터장 김일)는 9일 최근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글로벌 IP 스타기업’ 13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63개 기업 중 지식재산권을 10건 이상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등 심사를 거쳐 13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오는 19일 스타기업 인증식을 연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은 솔렌시스, 더리즈, 한동테크, 오픈테크놀러지, 알고코리아, 폰시스템즈, 인탑스엘이디, 엑스엘티, 대유에이텍, 휴먼전자, 아이비티, 준이엔씨, 뉴피아 등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시장에서 IP경영능력을 갖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안정된 R&D역량으로 독자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해 발전가능성이 크다.

센터는 이들 기업이 지역의 대표적 지식재산 경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7000만원 범위에서 총 3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허정보에 대한 종합 컨설팅과 선행 기술조사, 국내 출원비용 지원,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등 특허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브랜드 신규 개발 및 리뉴얼,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및 권리 등도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 2008년 5개사를 시작으로 2009년 5개사, 2010년 11개사 등 총 21개사를 선정,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보호 등과 관련해 3년동안 집중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IP 스타기업 선정을 계기로 광주시와 특허청의 공동 사업인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과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이들 기업을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갤럭시S Ⅱ, 해외서도 通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말 국내에 선보인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 Ⅱ’ 글로벌 예약 주문이 300만대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갤럭시S Ⅱ의 300만대 예약 주문량은 일반폰과 스마트폰을 통틀어 올해 출시된 삼성 휴대폰 단일 모델로는 최다 예약 주문량이다.

/연합뉴스

한은·전남대 ‘경제포럼’

무안 전남여성플라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가 11일 오후 3시부터 무안군 전남여성플라자에서 ‘2011년 제1차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의 이재국 사무관이 ‘지역 일자리정책 발굴 및 평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북대 경제학부 최창곤 교수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상일 경제조사팀장 등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포럼 이후에는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와 전남도 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2011년 전라남도 지역 일자리공시제 집합컨설팅 워크숍’도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양담배 ‘던힐’ 담뱃값 200원 인상 알고보니

매출 대비 원가율 98% ‘이상한 구조’

“내부 거래 손실 소비자에 전가” 비난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며 ‘던힐’, ‘켄트’ 등 담배 가격을 올린 외국계 회사 BAT코리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경쟁사와 다른 ‘내부 거래’ 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BAT코리아의 감사보고서와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10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BAT코리아는 지난달 담뱃값을 200원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담배잎 값이 많이 올라 영업이익이 최근 2년 동안 34% 주는 등 기업 수익성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실적으로만 보면 일면 수긍이 가는 해명이다.

하지만 BAT코리아의 매출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감사보고서에선 지난해 매출이 5870억원인데 매출원가가 5801억원이다.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98%에 달하는,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경쟁사인 KT&G의 원가율 40.1%, 필립모리스는 37%에 그친다.

그러나 세금과 각종 영업외비용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이 회사가 이전가격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BAT코리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법인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로스만스 극동지부(REF) 한국사무소다.

BAT코리아는 사천공장(BAT코리아제조)에서 담배를 만들어 바로 파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류상으로는 ‘던힐’의 상표사용권을 가진 BAT그룹 계열사인 RFE를 통해 제품을 판다.

‘BAT코리아제조→RFE→BAT코리아’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난해 BAT코리아와 RFE와의 거래액은 5830억원에 달했다. 사실상 매출액의 거의 모두를 이 회사와 거래해 온 것이다.

이에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이 회사의 2001~2004회계연도의 법인제세를 통합조사한 결과, RFE와 BAT코리아 사이의 이전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처분해 법인세 483억원과 부가가치세 123억원 등 모두 606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불복한 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항고했고, 결국 2009년 12월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돌려받은 이전가격조정 금액이 지난해 영업손실을 메우고도 남는 1165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발생한 당기순이익도 모두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REF의 이익때문에 BAT코리아가 손실을 감수했고 이를 세금환급이라는 방법으로 채웠다”며 “이러면서도 영업이익이 나쁘다며 담뱃값을 올린 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9개 부실 저축銀 매각 본격화

예보, 보해 등 7개銀 12~13일 입찰 공고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해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총 9개 저축은행의 매각이 이달 중에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해저축은행을 비롯,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입찰을 12~13일께 공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거쳐 정상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증자를 통해 기한 내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를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예보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곧 입찰을 공고한 뒤 이들이 증자 명령 이행 시한인 내달 중순까지 정상화에 실패하면 바로 본입찰을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은 분리 매각된다.

입찰 참가 자격은 자산 3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거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예보는 또 예쓰저축은행(군산·제주)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며 수차례 입찰에 실패한 예나래저축은행(전주 등 전북)은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총 9개 저축은행들의 매각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종 입찰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만 이번 주 중에 입찰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에 금융지주만 참여토록 제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축은행들을 우량 금융자본에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피자·햄버거…더 크게 더 싸게…

대형마트 ‘정크푸드’ 저가 경쟁

대형 유통사들이 일반 제품보다 훨씬 큰 인스턴트 식품을 앞다퉈 저가로 내놓으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업계의 대형 인스턴트 식품 경쟁은 지난해 이마트의 ‘이마트 피자’가 시발점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 지름 45㎝짜리 대형 피자를 1만1500원에 판매하기 시작해 소비자의 반응이 좋자 현재 전국 122개 매장에서 판매중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마다 하루에 150장 정도를 만드는 오븐이 2~3개씩 있다”며 “피자의 매출을 따로 집계하진 않는데 여전히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히트 상품’이 된 이마트 피자는 이후 대형 피자에 진출한 경쟁사의 가격과 크기 표준이 됐다.

롯데마트가 3월부터 전국 37개 점포에서 파는 ‘손큰 피자’와 롯데슈퍼의 ‘자이언트 피자’도 이마트 피자와 가격과 크기가 비슷하다.

편의점 GS25가 지난달 내놓은 저가 대형 피자인 ‘위대한 피자’는 지름 45㎝짜리 피자 한 판을 6등분, 한 조각씩 파는데 가격은 같은 크기의 이마트 피자(2500원)보다 510원 싼 1990원이다.

피자와 함께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인 햄버거 경쟁도 치열하다.

GS수퍼마켓은 3월 초대형 햄버거인 ‘위대한 버거’를 7990원에 출시했다. 지름 25㎝, 무게 600g으로 맥도날드 불고기버거(152g)의 네 배에 달하는 ‘대짜’ 햄버거다.

이어 홈플러스도 9일 직경 21㎝짜리 초대형 햄버거인 ‘메가버거’를 전국 123개 모든 매장에서 11일까지 9900원에 한시 판매한다. 두께가 7~8㎝에 중량 620g으로 역시 보통 햄버거의 네 배다. 그러나 이들 식품이 대부분 고열량 저영양의 이른바 ‘정크푸드’여서 소비자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연합뉴스

평 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